

총선 D-6

광주·전남 5대 관심지 캠프 막판 필승 전략



지난 2일, 제18대 총선 판세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광주일보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 진영에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우세한 후보들은 '승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뒤늦은 입장에 선 후보들은 결정적인 세몰이를 통해 '막판 역전'을 일구어 낸다는 선거 전략을 제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남구      광주 북구갑      광주 광산구갑      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신안

“본격 선거운동 시작 조만간 지지율 역전”

◇지병문 캠프=민주당 공천확정이 늦어지다보니 선거운동도 시작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이제는 민주당 공천 경쟁자들이 지 후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조만간 지지율 역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년 의정활동 부각 복구 발전 비전 제시”

◇강기정 캠프=한화갑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라며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 승리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젊은층 적극 공략 격차 벌리기 총력전”

◇김동철 캠프=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했다는 자책 판단이 내려진 만큼 막판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민주가 선택한 후보 적극 홍보 하겠다”

◇정영식 캠프=고정지지층은 변동이 없지만 부동층 공략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는 목포시장을 지낸 정 후보 지지층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로서는 목포 시민들이 막연하게 박지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내놨다.

“새인물 바라는 유권자 여망에 부합”

◇황호순 캠프=선거운동기간 지지율 등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선거 초반 깨끗하고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유권자의 민심을 읽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한 것이 적중했으며 남은 기간에도 특별한 전략 변화없이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등 지역현안 공약 반영”

◇강운태 캠프=이번 여론조사 결과 전통적인 지지층의 호응도 높았지만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이 급속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도 가파른 상승 정치인생 걸겠다”

◇한화갑 캠프=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 일꾼론 내세워 부동층 집중 공략”

◇송병태 캠프=고정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민선단체장으로서 지역을 위해 활동했다는 점에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겸손하고 조용히 대세론 확산에 최선”

◇박지원 캠프=최근 60대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후보는 박지원’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며, 그 계기는 이희호 여사의 목포방문 지지유세로 해석했다.

“지지율 이미 역전 인물론으로 승부”

◇김홍업 캠프=황호순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었지만 지난 1일 오후 발표된 KBC와 광주일보 공동 여론조사에서 19.5%로 황 후보를(15.2%)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선두에 올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우기자 jpkpark@kwangju.co.kr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과정.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224-4560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사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생활안내 광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오피스텔 분양공고. 전남 新 도청 앞. 실투자금 2,000만원대. 3.3㎡ 당 300만원대. 실투자금 대비 15%대 임대 수익률. 신도청과 마주보고 있는 남양신도시 대표 랜드마크.